

주의공헌 대축일

기도서 237 면(C해)
 제1독서 : 이 사 60, 1-6
 제2독서 : 에 폐 2
 복 음 : 마 태 2, 1-12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 11).

□ 강론



하느님 나라의 눈물

김 환 철 신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해외 나들이를 나갈 때는 반드시 007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듣는바에 의하면 자기 나라에 초 위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보턴 하나만 누르면 각종 미사일이 순식간에 발사되어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1985년전 하느님 나라의 대통령이 지상의 나라에 내려 오셨을 때 과연 그분도 007 가방을 들고 오셨을까?

나는 믿습니다. 그분도 그 가방을 들고 오셨음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걸요. 그 가방 속에는 기쁨의 선물을, 평화의 선물을, 사랑의 선물을 담뿍 담아가시고 오셨다고요.

논리적 3단논법을 빌린다면 하느님 나라에도 눈물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느님은 하느님 나라에 계시다. 그런데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느님 나라다.”

하느님 나라에도 겨울이 있을까? 하느님 나라에도 고통이 있을까? 하느님 나라에도 눈물이 있을까? 있어야 맞습니다. 썰매를 즐기는 꼬마들은 겨울이 추위 쾅쾅 열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이번 성탄절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가진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성장하여 자기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덜어주고 노력한 대가로 큰 상을 받는자의 눈물을 보았을 때 모든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느님 나라에는 웃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쁨과 희열과 감격의 눈물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선물을 마음에 가득히 담아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이 땅위에 하느님 나라가 현존해 있음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음을 보여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갈라디아 2:20).」 (교구 총대리)



먼저 해 주자

오래 전부터 천당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스개 소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 주거형태로 비교되는 이야기 하나-천당은 여럿이 함께 지내고, 지옥은 독방에서 혼자 지낸다. 물론 시설이야 천당이나 지옥이 똑같이 평준화되어 있어 부족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옥은 독방인지라 사생활 침해가 없어서 좋단다. 열댓 들으면 조금은 쉼이 맞지 않는 그야말로 우스개 소리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혼자서 단절된채 사는 삶과 이웃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함께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나, 이는 또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항상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사람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참을 줄 아는, 참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은 항상 이웃들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이 세상을 혼자서 사는 사람은 없다. 다만, 변화되기 전의 스쿠리치처럼, 스스로가 쳐 놓은 울안에 갇혀서 서성릴 뿐이다. 그래서 그는 별로 가치도 없는 혼자만의 기쁨(?)을 찾으며 살아간다. 바른 말을 듣기 싫어 아첨배의 장막속에서 혼자만 춤추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독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함께 사는 이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극이다.

새해는 성체와 가정의 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싶으신 그리스도의 성체성사 안에서 가정공동체를 주께서 원하시는 성가정으로 꾸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함께 사는 식구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마태오 7장 12절).

순정이 산책

1986년 사목목표
성체와 가정

좋습니다!
!

*** 성체와 가정의 해 *** '86년도 교구 사목지침

한국 주교단에서는 1986년을 성체와 가정의 해로 정했다.

모든이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사랑과 생명의 원천이신 성체께 대한 흠숭과 찬미를 통하여, 많은 문제로 번민하는 가정을 도와주며 참된 가정생활을 성체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가정을 그리스도께 봉헌하여 성체안에서 깊은 사랑의 일치를 이루므로써 이 사회가 더욱 밝고 평화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함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에 교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목지침을 설정하고 1986년을 더욱 노력하고자 다짐한다. 우리 모두가 지침에 참여, 더욱 보람된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

1.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정공동체

- 1) 가정기도 모임 정착
- 2) 가족단위의 신심행위 장려(가정 위한 미사, 조상 위한 미사, 합동 성체조배 등)
- 3) 가정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각종 모임 장려(가족단위 성서공부, 단합모임 등)

2. 성체안에 하나되는 본당공동체

- 1) 성체강복, 성시간, 성체현양대회
- 2) 성체신심장려(성체조배, 성체현시 및 기도모임)
- 3) 미사를 중심으로한 반모임 강화
- 4) 미사와 성체교리에 대한 집중교육

3. 순교정신 이어받는 교구공동체

- 1) 한국 순교성인, 특히 교구성인 공경 장려
- 2) 교구사 및 교구 성인전 보급, 주지
- 3) 교구 성지 개발(숲정이, 누갈다 묘역, 천호 기타)
- 4) 순교정신 양양을 위한 각종 행사(현양대회, 순례, 학술발표회, 전시회 등)
- 5) 순교정신 양양을 위한 각종 교육(세미나 개최, 순회강연, 피정)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③ 3651 · 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루리포니아)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학장 · 드레스마춤 · 대어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② 8653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칼라TV · VTR · 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 일체



금성 북전주 대리점

팩토링 분할 판매

(교우분은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안춘기(베네딕도) 김금수(세시리아)

※ 금성 부녀사원 모집중 전북대학교 입구

☎ 3-2419 74-2419

교 구 소 식

1. 사제평의회 : 7일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2.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정기총회 : 1월 11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각본당 사목회장, 교구단위 (단체장 각 1인씩)
3. 자연법적 가족계획 사용자를 위한 교육
대상-미혼 남녀·피임을 원하거나 임신 을 원하는 여성 (부부동반 환영)
때-1월 7일 오전 10시~12시 (매월 둘째 화요일마다 있음)
장소-가톨릭센터 2층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 (☎ 3-5098)
4. 아뉴스 어린이 합창단 : 수류천주교회 본당설립 90주년기념 음악회
일시-1월 19일 (일) 오후 3시·7시, 장소-전북 학생회관,
입장권 구입처-각 본당 사무실 (1천원)
5. 신앙대학 특강 : 신앙인을 위한 기쁜 소식 ! ※ 장소-교육관, 수강료-각 2천원
마르코복음 해설 : 1월 19일 오후 2시~6시
현대교리 교수와 방법론 : 1월 20일 오후 7시~9시, 1월 21일 오후 7시~9시
영성신학 : 1월 22일 오후 7시~9시, 1월 23일 오후 7시~9시
교회론 : 1월 25일 오후 2시~6시, 바울로 사상 : 1월 26일 오후 2시~6시
6. 감사합니다 : 지난 12월 20일 군중후원회 주최로 35사단 국군장병 위문에 협조해 주신 장병가족 및 후원회 임원, 회원 그리고 전동성당 성가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1월호 안내

85년 4월부터 발간된 농촌 및 공소 신자들을 위한 사목월간지 「주님의 날」 10호의 내용은 새해의 기도, 농촌 신자들에게 보내는 주교님 말씀, 전주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의 의미, 그림 명상인 약수터, 생활전례, 신앙생활 체험을 담은 독자들의 글, 농사정보, 용안본당 석동공소 소개, 신부님들의 강론을 곁한 공소예절, 1월 축일표, 교구 행사표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10호부터는 '성체와 가정의 해'를 맞아 신앙인의 가정소개와 전주교구사, 교구 행사의 뒷이야기 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 신자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강론 집필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청은 교구청 홍보국으로

※ 가정기도 시편 : 23 : 1-10 독서 : 필립비 3 : 12-21 복음 : 루가 2 : 22-35

♣ 잠깐!

어디쯤!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창 3:9)

너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느님의 이 물음은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하느님이 모르시던 무엇을 배우시자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뜻하시는 바는 그런 물음이 아니고서는 날 수 없는 효과를 인간에게 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아담은 셀바치기를 꺼려 자신의 생활양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숨는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동기로 숨는다. 자기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기 실존을 온갖 은신처로 꾸민 요지경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처럼 하느님 면전에서 숨고, 또 숨고 함으로써 점점 더 깊이 타락에 얽매어 들어간다. 사람은 하느님 눈에서 숨을 수 없으나 그래도 숨으려함은 자신에게서 숨으려는 것이다.

각 시대마다 하느님은 사람 하나하나에게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네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까지 와 있느냐, 너는 이제 마흔 여섯해를 살았는데 그래, 어디쯤 와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다.

인간구원은 바로 이 물음에 정면으로 응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
또, 새해다. 그래, 나는 어디를 향해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요십이 (648) 김병오

1986년 새해에는

인권을 짓밟는 자는 지구를 떠나가라!

민주화를 외면하는 자는 나가 놀아라!

사랑이없는 신앙인은 손가락을 놓아라!

연지동성당 사무장 모집

1. 자격 : 25세 이상 용모 단정하고 신심이 두터운 남자 ○명
 2.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3. 학력 : 고졸 이상
 4. 접수마감 : 1월 15일
 5. 접수처 : 정주시 연지동 천주교회 본당신부
- 연지동성당 주임신부 이종원

*커피의 명문

*최고급 시설

신전커피숍

2-3962
이리 이도백화점 앞 2층
명성예식장
6-0416
주 김현식(바오로)

전북의료보조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 3668

자택 ☎ 8120

3개월 수료 자격증취득 보장
개인지도, V.T.R 교육
취업보장, 개업알선
미용을 하였으나 자신이 없으신분 상담 환영

현대 미용학원

중앙성당 건너편

코아백화점 앞

김금순(테레사)

전북의료보조조합지정병원

마기환안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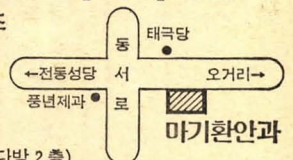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안과전문 의 마 기 환

한 남 희(비리시터)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건너편 불새대방 2층)



전주시 서노송동 639
 주임신부 성 민 호
 보좌신부 김 희 남
 사목회장 김 인 협

중 앙 천 주 교 회

사 제 관 ⑤ 17113
 수 녀 원 ⑤ 17112
 사 무 실 ⑤ 17111

☆ 미사시간

주일 : 새벽미사-6시, 학생미사-오전 9시,
 공식미사-오전 10시30분, 아동미사-오후3시
 저녁미사-오후 7시
 평일 : 월-오전 6시, 화·수·목-오전 6시·오후 7시
 금-오전 10시30분(어머니미사), 오후 7시
 토-오전 6시·오후 7시(특전미사)

오늘의 전례

기도서
237 면

☆ 예비자교리 안내

일반인 : 목-오후 7시30분, 일-오전 11시30분
 지성인 : 일-오후 8시, 노인 : 금-오전 9시
 직장인 : 토-오후 7시30분, 학생 : 토-오후 5시

☆ 반미사 안내 : 10일(금) 오후 8시,
 10반-엄익도(4-7363)

본당 소식

1. 병자봉성체 : 7일(화) 오후 3시
 교우분중에 병환으로 성사를 못보신 분과, 일요일 미사에 나오실 수 없는 분은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2. 쌍두스(청년)성가대 임원개편 : 수고하시겠습니까
 단장-유영천(베드로), 부단장-유영립(엘리사벳)
 총무-유원식·한인숙, 재무-이영자,
 전례-전종희, 섭외-박치순
 3. 금주모임 : 주일학교 자모회-오늘 오후 3시
 다미안회-7일(화) 저녁미사 후
 반장회합-10일(금) 어머니미사 후
 꼬미씨웁-다음주 공식미사 후
 4. 86년은 가정의 해입니다. 먼저 개인성화를 위하여
 1인 1단체 가입을 하도록 합시다.
 5. 지하 소성당 완공 : 금주부터 평일미사는 지하소성당
 에서 하겠습니다. 도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 지하 소성당 헌금
 재속형제회-3만원, 익명-10만원
 7. 특별헌금 : 박다미아노-1만원, 조금천·정일신-2만원
 8. 축! 결혼 : 12시, 신랑-조금천(요왕), 신부-정일신
- 지난주 봉헌금 : 991,900원 교무금 : 1,534,400원

제 1 독서 : 이사야서 60장 1~6절(1223면)

증 계 송 : (후렴) 하느님, 만백성이 당신께 조배하리이다.

1. 하느님, 당신 즐거움을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후렴)
2. 정의가 꽃피는 그의 성대에 저 달이 다하도록 평화 넘치리이다. 그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물에서 땅끝까지 왕하시리다(후렴)
3. 타르시스와 셉나라 왕들 예물을 바치고 사바와 세바의 임금들이 봉물을 바치리니 세상의 임금들이 모두 다 조배하며 만백성이 그이를 섬기리이다(후렴)
4. 당신께 하소하는 가난한 이와 외롭고 불쌍한 이를 구하시기 때문이니 약하고 아취운 이를 여여배여 기시고 없는 이의 목숨을 살려주시리이다(후렴)

제 2 독서 : 에페소서 3장 2~3절, 5~6절(369면)

복 음 : 마태오복음 2장 1~12절(2면)

영성체송 : 동쪽에서 주의 별을 보았기에, 예물을 가지고 주께 예배드리러 왔나이다.

다음주 미사 해설자

특전미사 : 손 문(요 한)
 새벽미사 : 김 완 준(안토니오)
 학생미사 : 김 지 아(카타리나)
 공식미사 : 배 창 수(도 마)
 저녁미사 : 이 영 희(테 레 사)

♣ 중앙성당 교우의 집

가 나 약 국
 전주우체국 앞
 전화 2-5652
 활 의 욕(파로)

최신 장비 시설
스타 사장
 칼라·흑백 고급사진
 비디오 촬영
 ☎ 2-6094
 구 역전오거리 남쪽
 장 남 수(바오로)

□이전 개업
대 건 회 관
 연회석 완비
 단체손님 환영
 한성여관 뒷편,
 문산부인과 앞
 ☎ ⑦566·③170
 김한영(안토니오)
 하정희(엘리사벳)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특수 파티복 |
 *고급 칠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펀지 |
서 울 주 단
 ☎ ④0453 ⑥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